

USDA-EPA-FDA,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전략 공개



▲ 출처: organics.org

2019년 4월 9일, 워싱턴 D.C.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 폐기물 감축 달'의 일환으로 USDA, 에너지보호청(EPA), 그리고 식품의약품(FDA)은 식품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부처간 전략을 발표했다. 3개 기관은 정부 차원에서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협력 방법에 대해 주정부, 현지정부, 공동체 지도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EPA 본부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의 풍부한 농산물은 쓰레기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한 Sonny Perdue 농무부 장관은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약 100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식품시스템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와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식품 폐기물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이다. 이번 이니셔티브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우리가 식품 폐기물 감축

에 대한 미국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중요한 전략 발표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식품 폐기물을 감축하고 버려지는 초과 생산물을 전용(轉用)하여 공동체를 먹여 살리고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Andrew Wheeler

EPA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전략은 소비자 교육 개선과 식품 표시제 등 우리 식품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6개 주요 행동영역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오늘의 행사는 혁신적인 식품 폐기물 관련 해결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민간 협력주체들을 초청했다"라고 부연했다.

"식품 안전과 식품 폐기물 사안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연구들은 식품포장에 표기된 날짜에 대한 혼란이 식품 폐기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식품포장에 표기된 기간은 식품의 안전이 아닌 최적의 품질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Frank Yiannas FDA 부국장은 강조했다. "또한 이용가능한 식품의 3분의 1 이상이 버려지거나 손실되고, 미국인 6명 중 1명이 식품매개 질병을 앓는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식품 안전과 관련된 공포로 인해 필요

이상의 식품이 버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FDA는 식품에 표기된 날짜를 통해 소비자들이 언제 식품이 처분되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 FDA는 식품 폐기물을 안전하게 감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EPA 및 USDA와 계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오늘 발표된 부처간 전략인 2019-20 식품 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방부처간 전략에는 3개 기관이 협력해나갈 6개 주요 우선순위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1. 기관 간 조정 강화
2. 소비자 교육 및 봉사 노력 증대
3. FLW 관리에 대한 조정 및 지침 개선
4. 식품 안전, 식품 라벨, 식품 기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5. 공급체인 전반에서의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을 위한 업계와의 협력
6. 연방정부 시설에서의 식품 폐기물 감축 장려

동 행사에서는 Perdue 장관, Wheeler 청장, Yiannas 부국장의 연설에 이어 "식품 폐기물 감축 노력을 통해 주, 도시, 그리고 기관들이 얻은 교훈"을 주제로 한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식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특정 공동체들의 노력과 주, 부족 그리고 현지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정보공유 세션이 있었다. 그 외에도 주 정부 및 현지 지도자들은 미국 내 식품 손실 및 폐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측과 새로운

협력을 개시하거나 기존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에 서명했다. 3개 기관은 관련 전략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식품 폐기물 감축에 앞장서는 비정부기구(NGO)인 ReFED와 공동협약을 체결했음을 밝혔다.

식품 폐기물 감축 전략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동 행사는 3개 연방정부 기관이 2018년 서명한 공식적인 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식품 폐기물 감축 이니셔티브는 기관 특수적 노력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FLW을 감축시키기 위한 USDA-EPA-FDA 간의 협력적 노력이다. 이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이니셔티브 이행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을 장려하며 미국 내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행동에는 연구, 공동체 투자, 교육 및 봉사, 민관협력, 도구 개발, 기술지원, 행사참석, 정책토의 등이 포함된다.

USDA, EPA, 그리고 FDA는 공공 및 민간 협력주체들이 다음 행동에 동참하여 식품 폐기물 감축의 달을 기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SNS에 식품 폐기물 감축 노력 공유 및 #NoWastedFood 해시태그 활용
- USDA, EPA, 그리고 FDA의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 사업 및 자원 확인
- 2030년까지 식품 손실 및 폐기물 50% 감축 선언

미국에서는 생산되는 식품의 3분의 1 이상이 버려지거나 손실된다. 식품은 일상적으로 발생하

는 쓰레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식품 손실 및 폐기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강조되었으며, 실질적인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식품이 버려지면 경제성장, 건강한 공동체, 환경보호를 위한 기회도 함께 버려진다. 그러나 이는 협력, 리더십, 그리고 행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에탄올, 휘발유보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 더 큰 것으로 나타나

2019년 4월 2일, 워싱턴 D.C. USDA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옥수수 기반 에탄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휘발유보다 39%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에탄올이 천연가스로 작동되는 정제소에서 정제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휘발유의 43%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들은 당초 예상보다 미국의 심장부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더 크며, 우리 농민들과 에탄올 공장이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라고 말한 Sonny Perdue 농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발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15 판매량 확대는 소비자들이 주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혀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Jan Lewandrowski USDA 수석경제학자의 주도 하에 이뤄진 본 연구는 에탄올이 기존 예상

출처

USDA, EPA, and FDA Unveil Strategy to Reduce Food Waste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9/04/09/usda-epa-and-fda-unveil-strategy-reduce-food-waste>)

했던 것 보다 훨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효과적임을 증명하며, 이에 대한 결과들을 뒷받침한다. 기존 연구들은 농가들이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라 옥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할 것으로 추정한 반면,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배면적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한, 경운 및 피복작물 재배 감소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농가의 보존 관행과 에탄올 정제소에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은 옥수수 에탄올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졌다.

출처

USDA Study Shows Significant Greenhouse Gas Benefits of Ethanol Compared with Gasoline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9/04/02/usda-study-shows-significant-greenhouse-gas-benefits-ethanol>)

★담당: 김현정 (tao@tao.or.kr)